

#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 부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Marital Instability

: Focus on the Interaction Behaviors of Couples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현 은 민\*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Univ.

Professor : Hyun, Eun-Min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couple interaction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marital instabilit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satisfaction and economic pressure greatly influenced the marital instability of married males and females. However, the interaction behaviors of couples tended to have a stronger impact on marital instability than economic stress. In other words, perceived spouse support and perceived spouse hostil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rital instability, with perceived spouse hostility being the more damaging of the two.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regarding the impact of couple interaction behaviors on marital instability and economic stress. For married males, economic satisfaction as well as couple interaction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marital instability. For females the impact of couple interactions on their marital instability tended to be more salient.

On the whole,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economic stress and couple interaction behaviors on marital instability did not appear significant, except in the case of females' perceived spouse hostility and its effect on marital instability.

---

▲주요어(Key Words) : 경제적 스트레스(economic stress), 부부상호작용(couple interaction behaviors), 결혼불안정성 (marital instability)

## I. 서 론

### 1. 문제제기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가까

워가는 현재 IMF체제는 벗어났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노동시장의 악화 등 많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자의 증가, 중산층의 빈곤층으로의 전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은 사회의 단위로서 사회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회의 안정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

---

\* 주 저 자 : 현은민 (E-mail : emh@andong.ac.kr)

안정하면 가족도 자극과 위협요소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불안정성의 요소 중 외적인 요소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신명일, 2004). 경제위기는 가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원들 사이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부관계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게 되어 폭력,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이혼, 가출, 자녀유기 등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있다(조성희, 1999).

경제적 문제로 이혼한 부부는 1993년에 2.3%에서 2003년도에 16.4%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하루 이혼을 488건으로 10년 전보다 7배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고, 그 중 경제적 문제로 이혼한 부부가 16.8%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4). 주목할 점은 IMF 이후 여전히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57.6%)을 꼽고 있고(한국여성개발원, 2005) 최근 생계형 이산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일보, 2006년 9월 12일자).

결혼관계는 부부의 외적관계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부부간 관계의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부부관계가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연속적으로 가족의 존속도 위협받게 된다.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자극들이 부부관계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가족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Elkind, 1999; 김영희, 1999; 최선희·전명희, 1999)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부부를 가족의 중심축으로 지목하고 있다.

장해경과 김영란(1999)도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업으로 인한 가족갈등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부부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희(1999)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자원이 적은 가족이 해체될 위험이 높지만, 보다 직접적인 가족의 해체 원인은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이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영향을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관계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족관계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가족해체와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부부관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가져온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대적 행동은 증가하고 지지적 행동은 감소하여 결국 부부관계는 갈등적이 되기 쉽다(Conger et al., 1990b; Vinokur et al., 1996).

실직이나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즉 배우자나 친척,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실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실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과 빈도의 정서적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유성렬·정기원, 2000).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실직 등의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받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Kessler et al., 1988; Liem & Liem, 1988)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시 하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지지행동은 부부 상호작용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초점이 되어 온 반면 사회적 적대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적 적대행동이 지지행동보다 정신건강과 심리적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Rook, 1984; Ruleman & Wolchik, 1988; Taylor, 1991)과 사회적 적대와 스트레스 수준이 상호작용 할 것이라는 지적(Vinokur & van Ryn, 1993)을 고려하면 적대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와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지행동과 적대적 행동을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Lempers & Clark-Lempers, 1997)를 고려할 때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족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F 이후 실직이나 경제적 위기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신명일, 2004; 유성렬·정기원, 2000; 이경영, 2000; 정진성, 2001)이 가장의 실직에 따른 적응문제나 대처방식, 심리적 디스트레스, 가정생활 변화 등을 밝히는데 기여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별로 없다. 부부관계를 본 연구(김연옥, 2001; 노혜련, 2000; 이민경, 2000; 조성희, 1999)들도 부부관계의 역할변화나 또는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밝히고 있으나 결혼의 질과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부부들의 행동반응, 즉 배우자 간의 지지행동과 적대행동의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성패요인이 부부가 교환하는 상호작용 행동에 달려 있다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Gottman(1994)도 결혼생활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공존하게 되지만, 결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의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결혼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이동원, 1988; 한남제, 1975; Conger et al., 1993; Mills et al., 1992; Walsh & Jackson, 1995)은 사회화 과정과 자아개념 및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이 남녀 간에 다르다는 관점에서 경제적·대인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성에 따라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남성의 도구적 역할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자녀양육과 정서적 욕구충족의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생활에서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는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배우자 간의 지지적 또는 적대적 상호작용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때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따라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관계의 질적 측면과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이를 다룬 연구는 별로 없으며 결혼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배우자의 지지행동과 적대행동을 포함하는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성차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 행동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우리사회에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의 안정성에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를 밝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상담·교육적 개입과 가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둔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이 성차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3>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성차에 따라 다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

#### (1) 배우자의 지지행동과 결혼불안정성

배우자의 지지행동은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여 애정과 보살핌,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행동,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Cutrona, 1996).

부부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며 부부간에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는 행동교환은 서로의 친밀감과 보살핌을 촉진시켜 상대 배우자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는 대처자원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

배우자의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는 대처자원의 역할을 하므로(Manne & Zautra, 1989)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결혼안정성에 기여한다. Cutrona(1996)에 의하면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의 결혼만족 및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배우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 수준이 높으면 지지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결혼만족과 안정성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장춘미(2001)의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은 감소하였으나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이 자신이 제공하는 지지뿐 아니라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경성(2003)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술하고 더 반추하며 긍정적 행동이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Pasch와 Bradbury(1998)도 개인적 곤란에 대해 부부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기술이 결혼만족 및 결혼해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지지 제공 기술이 부족한 부부간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긴장이 생겨(Jacobson & Magolin, 1979; 장춘미 2001 재인용) 결혼생활이 더 악화되고 해체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 (2) 배우자의 적대행동과 결혼불안정성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은 상대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싫어하거나 배우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이다(Vinokur et al., 1996). 배우자의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자원(Thoits, 1986)이 되는 반면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은 단순히 대처자원으로써의 결핍이나 철회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응의 형태(Abbey et al., 1985; Shinn et al., 1984)로서 부부관계의 질을 떨어뜨려 결혼불안정성을 야기한다.

결혼생활에 불만족이 심한 부부는 만족하는 부부에 비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 교환양식이 또한 상호적이다(Margolin, 1990).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회피, 혹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즉시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는 양상의 상호작용으로 결국 부부는 서로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 적개심을 갖게 된다. Christensen과 Pasch (1993)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상호부적개입이라 하였고 이와 같은 갈등해결과정은 부부간의 분노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상승효과를 일으킨다(장춘미, 2001 재인용). 이처럼 배우자의 적대적인 비난이나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은 결혼의 불만족을 초래하여 결혼안정성을 위협한다. Vinokur와 van Ryn (1993)도 배우자의 지지와 비난은 하나의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하기보다 서로 다른 두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고 지지보다 비난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anne과 Zautra(1989)는 배우자의 비난은 장기적인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적대적인 행동은 특히 배우자의 자존감을 손상시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지는 비효과적인 대처행동이나 더 나아가 해가 되는 대처행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관계에서 교환하는 배우자간의 지지적·적대적 상호작용이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배우자간의 지지행동 뿐 아니라 적대행동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 2.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은 가족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부부관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의 질과 이혼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Conger et al., 1990b)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의 질은 부적관계를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경향성은 정적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부정적 영향은 우울이나 나쁜 정신건

강뿐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일으키고 늘어나는 긴장과 좌절감으로 인해 가족 간에 파괴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유지시키게 된다(Berkowitz, 1989; Vinokur et al., 1996 재인용). Conger 등(1990a, 1990b)은 경제적 곤경은 가족 상호작용에서 지지적 행동은 감소시키고 적대적 행동을 증가시켜 결혼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경제적 곤경과 재정적 긴장의 역효과는 사회적 비난과 지지의 역기능적 상호교환을 통하여 증폭된다. 즉 적대감과 우울, 좌절감이 증가되면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적대감을 유발하여 지지행동은 철회하고 비난행동을 증가시키게 되어(Vinokur et al., 1996) 배우자 모두에게 관계만족도를 저하시켜 별거나 이혼으로 이끌게 된다(Gottman & Levenson, 1992).

경제적 긴장은 아내의 상호작용 행동보다 남편의 상호작용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남편에게 부과되는 주부양자로서 책임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내 보다 훨씬 큰 긴장과 적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실직은 부부간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높이며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태도가 분노적이고 적대적으로 반응한다(이민경, 2000; Elder et al., 1992; Liker & Elder, 1983). 특히 만성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분노의 폭발이나 다툼이 일상화 되어 비난행동을 많이 하고 지지행동은 적게 하는 방향으로 부부간 상호작용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박유신, 1999).

남편이 실직한 가족들의 경우 비실직 가족들에 비해 부부간의 상호지원적 행동이 감소하고 다툼과 적대적 행동이 빈번해지며 상호응집력도 약화되어 이런 가족들에서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어렵고 상호합의 수준도 취업가족들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Larson, 1984; Perrucci & Targ, 1988; Voydanoff, 1990; 임인숙·안병철, 2000 재인용). Liem과 Liem(1988)의 연구에서도 실직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대화가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부긴장이 극에 달하게 되어 결혼생활이 해체되기도 한다(조성희, 1999 재인용).

Elder 등(1992)은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을 경제적 박탈감과 연관된 과정의 반복되는 결과물로 보았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적응을 통해 부부간의 적대감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남편들이 경제적 중압감과 가계소득의 감소에 대한 반응으로 아내에게 분노와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고 경제적 중압감이 심할수록 폭

발적으로 반응하여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아내의 비난과 적대적 행동으로 반복된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irritability cycle'이라고 한 Patterson(1982)의 개념과 유사하다(이민경, 2000 재인용).

이상의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직접적으로 결혼불안정성을 야기하여 가족해체를 초래하기보다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에 질적 변화를 가져와 부부갈등을 심화시켜 결혼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간의 지지적, 적대적 행동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성차에 의한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

결혼불안정성과 관련해서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의 성차를 다룬 관련 연구들은 별로 없는 편이며 또한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 상호작용 행동과 관련하여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Acitelli & Antonucci, 1994; Julien & Markman, 1991)은 배우자의 지지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비하여 아내의 결혼만족에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Cutrona(1996)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상호작용에서 갈등해결행동에 비해 부부간의 지지가 더 중요하며 지지적인 행동빈도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 중 장춘미(2001)와 전영민(2000)의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서 결혼만족과 갈등해결행동은 관련이 없고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결혼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적 적대행동이 긍정적 지지행동보다 개인의 적응이나 결혼관계에서 더 영향력이 크다고 밝힌 연구들(Berkowitz, 1989; Conger et al., 1990a, 1990b, 1993; Gottman, 1994; Price, 1992; Vinokur & van Ryn, 1993)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되지만 적대행동은 지위와 세력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와 상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낮은 지위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Menaghan, 1991) 적대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여성의 취약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적대행동의 역효과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bbey 등(1985)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불안이나 우울, 삶의 질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inokur 등(1996)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와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이 동일한 정도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경제적 위기와 같은 주요생활 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도 성차가 나타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다르고 심리적 보상과 비용을 다르게 경험함을 나타낸다. 남편들은 일이나 재정과 관련이 있는 주요 생활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에 민감하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보다 남편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장으로서 생계책임자의 역할수행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박유신(1999)의 연구에서도 기혼남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경제적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배우자 비난행동을 높게 지각하였고 지지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내들은 가족과 관련된 대인관계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민감하여(Conger et al., 1993) 친밀한 가족 간의 질적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Williams, 1988; Conger et al., 1993). 따라서 정서적으로 충족되는 결혼생활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큰 보상을 주지만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결혼생활은 아내에게 더 위기의식을 가져다준다(Mills et al., 1992). Cohen과 Bradbury(1997)는 아내의 대인관계 사건은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주요 생활사건은 결혼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Mills 등(1992)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남편에 비해 아내의 심리적 안녕감에 두배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부정적 생활사건과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간에 서로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부정적 갈등해결행동이 증가하여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의 갈등해결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결혼만족은 자신과 남편의 갈등해결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Aneshensel(1991)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사회적 관계망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아내가 경제적 곤란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가져오며 배우자 간에 적대적 행동이 지지적 행동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불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혼의 질과 안정을 위한 개입에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규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간의 지지적 행동과 적대적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다양한 생활사건에서 성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르고 부부 상호작용의 방식과 부부관계에 다르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어 성 차이를 밝혀주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관련연구들이 거의가 외국 연구 결과들이고 국내 연구 중 경제적 위기와 결혼안정성 관련해서 부부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해 보고자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기혼남성과 여성 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 문항을 검토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부 모두가 답한 경우가 적어 남성과 여성 각각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도시인 D시와 S시 그리고 소도시인 A시와 G시를 조사하여 대도시와 소도시의 조사대상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먼저 A시와 D시의 노동부 지정 고용안정센터에 협조를 구하여 센터를 방문한 기혼남성과 여성들에게 질문지에 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또한 A시와 D시, G시 그리고 S시의 일선학교에 협조를 구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부모에게 받아 온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누락자료나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7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서는 40대가 40.5%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8.4%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55.2%, 남자가 44.8%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63.8%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 대졸이 43.4%로 가장 많았고, 고졸도 39.4%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에서는 중이 40.1%로 가장 많았고, 중하도 38.4%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40.1%로 가장 많았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200만원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도 31.9%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대체로 건강하다가 42.3%로 가장 많았고, 보통도 40.5%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실직/무직이 23.3%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판매/서비스, 생산직과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구분 빈도(%)	
연령	20대	14 (5.0)	
	30대	107 (38.4)	
	40대	113 (40.5)	
	50대이상	45 (16.1)	
성별	남자	125 (44.8)	
	여자	154 (55.2)	
자녀수	없음	18 (6.5)	
	1명	51 (18.3)	
	2명	178 (63.8)	
	3명 이상	32 (11.5)	
교육수준	중졸이하	32 (11.5)	
	고졸	110 (39.4)	
	전문대/대졸	121 (43.4)	
	대학원이상	16 (5.7)	
생활수준	상	3 (1.1)	
	중상	22 (7.9)	
	중	112 (40.1)	
	중하	107 (38.4)	
	하	35 (12.5)	
	종교	무교	112 (40.1)
		불교	97 (34.8)
		기독교	48 (17.2)
천주교		21 (7.5)	
기타		1 (4)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9.7)	
	100-200만원	95 (34.0)	
	200-300만원	89 (31.9)	
	300-400만원	36 (12.9)	
	400만원 이상	32 (11.5)	
건강상태	매우 건강	19 (6.8)	
	대체로 건강	118 (42.3)	
	보통	113 (40.5)	
	건강하지 못함	26 (9.3)	
	매우 건강하지 못함	3 (1.1)	
직업	전업주부	59 (21.1)	
	실직/무직	65 (23.3)	
	정년퇴직/연금생활자	2 (7)	
	임시, 단순노무	14 (5.0)	
	판매/서비스, 생산직	40 (14.3)	
	소규모 자영업	25 (9.0)	
	사무직	40 (14.3)	
	기술직	17 (6.1)	
	전문직	2 (7)	
	기타	15 (5.4)	
계	279(100.0)		

### 3. 측정도구

#### 1)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압박감과 경제적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과 경제적 복지의 주관적 지표로 꼽히는 경제적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두 하위척도의 합산한 값을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로 보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 (1) 경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은 박유신(1999)이 사용한 척도 중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직, 소득감소, 각종 요금의 지불 곤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가족원의 취업, 돈을 빌림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 없다'에 1점과 함께 '별로 괴롭지 않다' 부터 '대단히 괴롭다' 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압박감을 높게 인식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으로 나타났다.

##### (2)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는 소득과 긴급상황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순자산 등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로 나타났다.

#### 2) 부부 상호작용

부부 상호작용은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행동과 적대행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박유신(1999)과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 (1) 배우자 지지행동

배우자 지지행동은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격려, 문제해결 위한 의견이나 정보 제공, 인정과 공감, 취업이나 부업 통한 도움 등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로 나타났다.

##### (2) 배우자 적대행동

배우자 적대행동은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불평이나 비난, 무시, 화, 무관심,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음 등의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적대행동을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로 나타났다.

#### 3) 결혼불안정성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의 대리변수로서의 이혼경향성(Booth et al., 1983)을 측정하였다. Conger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 지각, 주위사람에게 결혼문제 의논, 이혼이나 별거 고려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없다' 부터 '항상 있다' 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경향성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혼불안정성이 높음을 반영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과 성차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련변인간의 성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결혼불안정성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하였다.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표 2>),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 값이 모두 .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남성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표 2>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압박감	지지행동	적대행동
경제적 만족도	1.000			
경제적 압박감	-.648***	1.000		
지지행동	.335***	-.287***	1.000	
적대행동	-.338***	.429***	-.518***	1.000

\*\*\*p<.001

<표 3>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력

Model	결혼불안정성		
	$\beta$	t	
1	경제적 만족도	-.270	-3.738***
	경제적 압박감	.178	2.466*
	$R^2$	.167	
	F	27.567***	
2	경제적 만족도	-.170	-2.692**
	경제적 압박감	.015	.239
	지지행동	-.239	-4.263***
	적대행동	.369	6.308***
	$R^2$	.394	
	$R^2$ change	.227	
F	44.588***		

\*p<.05, \*\*p<.01, \*\*\*p<.001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표 3>), 1단계 모델에서 경제적 만족도( $\beta = -.270$ )와 경제적 압박감( $\beta = .178$ )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6.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압박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 모델에서 부부 상호작용 변인이 추가된 후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2.7%p 증가하여 총 39.4%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 경제적 압박감의 영향은 없어지고 배우자의 적대행동( $\beta = .369$ ), 지지행동( $\beta = -.239$ ), 경제적 만족도( $\beta = -.170$ )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고 지지행동에 대한 지각은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상호작용인 적대행동과 지지행동의 영향력이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 보다 더 크게 나타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지지행동과 적대행동 지각이 결혼불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작용 행동 중 적대행동( $\beta = .369$ )에 대한 지각이 지지행동( $\beta = -.239$ ) 지각에 비해 결혼불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성차에 따른 영향력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차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남성 집단과 여성집단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1단계 모델에서 남녀 모두 경제적 만족도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19.8%와 15.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2단계 부부 상호작용이 투입된 모델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남성 23.6%p, 여성 21.9%p가 증가하였고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의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이 결혼불안정성에 가장 강한 정적 영향을



<표 4> 기혼남녀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

Model	남 성			여 성			
	B	$\beta$	t	B	$\beta$	t	
1	경제적 만족도	-.274	-.316	-3.274**	-.245	-.239	-2.213*
	경제적 압박감	.095	.169	1.752	.113	.195	1.800
	$R^2$		.198			.155	
	F		18.676***			11.162***	
2	경제적 만족도	-.194	-.223	-2.647*	-.145	-.141	-1.486
	경제적 압박감	.012	.022	.256	.007	.012	.120
	지지행동	-.153	-.177	-2.431*	-.224	-.234	-2.529*
	적대행동	.366	.426	5.912***	.279	.356	3.485**
	$R^2$		.434			.374	
	$R^2$ change		.236			.219	
	F		28.559***			17.888***	

\*p<.05, \*\*p<.01, \*\*\*p<.001

미쳤으며 지지행동 지각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적대행동( $\beta = .426$ ), 경제적 만족도( $\beta = -.223$ ), 지지행동( $\beta = -.177$ )순으로 영향을 미쳐 배우자의 지지보다 경제적 만족도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만족도의 영향은 없어지고 배우자의 적대행동( $\beta = .356$ )과 지지행동( $\beta = -.234$ )의 부부 상호작용 요인만 결혼불안정성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성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기혼남성과 여성 집단별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에 의한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지행동과 적대행동 평균을 기준으로  $\pm 1/2$  SD로 구분하여 상, 중, 하 집단 중 상 집단과 하 집단만을 대상으로 결혼불안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지지적, 적대적 상호작용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지행동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지지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스트레스와 지지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는 지지행동은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지행동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배우자의 지지행동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았고 여성은 배우자의 지지행동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은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배우자의 적대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은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을 보면, 적대행동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결혼불안정성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적대행동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적대행동이 낮은 집단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M=1.2)이 낮은 집단(M=1.49)보다 결혼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적대행동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M=1.3)보다 높은 집단(M=2.54)에서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결혼불안정성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고 낮고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이 크게 영향 받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지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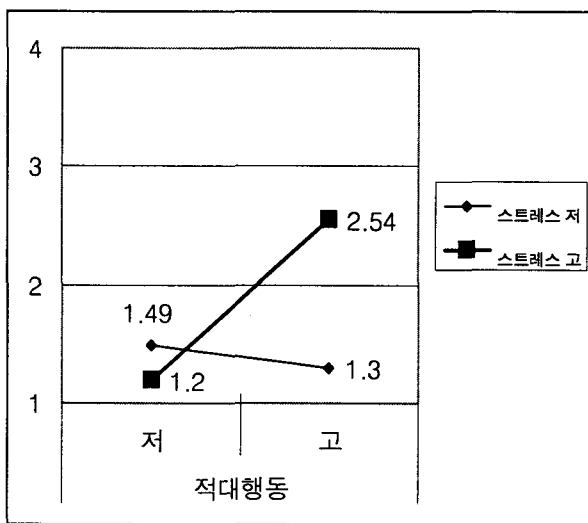
변량 원	남성				여성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스트레스(A)	9.148	1	9.148	27.094****	.925	1	.925	1.623
지지행동(B)	2.688	1	2.688	7.961**	5.780	1	5.780	10.146**
A*B	.321	1	.321	.951	.500	1	.500	.878
오차	19.921	59	.338		22.788	40	.570	
전체	39.309	62			34.069	43		

\*\*p<.01, \*\*\*p<.001

<표 6>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변량 원	남성				여성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스트레스(A)	3.733	1	3.733	12.927**	.964	1	.964	2.334
적대행동(B)	6.460	1	6.460	22.369***	1.415	1	1.415	3.427
A*B	.056	1	.056	.192	2.547	1	2.547	6.167*
오차	19.350	67	.289		18.584	45	.413	
전체	43.697	70			33.438	48		

\*\*p<.01, \*\*\*p<.001



<그림 1>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적대행동의 상호작용 효과(여성)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의 지지적, 적대적 상호작용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리고 남녀 성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인 경제적 만족도와 경제적 압박감이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압박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증가 현상을 뒷받침한다.

둘째, 부부 상호작용의 지지행동과 적대행동 모두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행동에 대한 지각 보다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의 질을 낮추고 가족해체의 요인이 되는 여러 연구(조성희, 1999; Conger & Elder, 1990a; Dew & Bromet, 1991; Gottman & Levenson, 1992)와 일치하며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공존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지적한 Gottman(1994)의 연구와 부부관계에서 부정적 적대행동이 긍정적 지지행동보다 결혼관계에 더 영향력이 크다고 밝힌 연구들(Conger 등, 1990; Vinokur & Ryn, 1993)을 지지한다.

셋째,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차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만족도가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의 경우 경제적 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소득뿐 아니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포함하는 경제적 만족도가 남성의 결혼불안정성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부부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력과 함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배우자로부터의 지지행동과 적대행동 지각에 대한 영향력만 나타났다. 이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문제에 민감하고(Conger et al., 1993)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여성보다 훨씬 큰 긴장과 적대감을 나타낸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고 결혼관계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민감하다는 장춘미(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배우자의 적대행동은 여성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며 갈등과 긴장을 증폭시켜 결혼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남성도 배우자로부터 받는 적대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지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 모두 결혼불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성별로 본 결과는 여성의 결혼불안정성은 배우자의 지지행동에 따른 차이와 경제적 스트레스와 배우자로부터의 적대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남성의 결혼불안정성에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지행동 그리고 적대행동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이 독립적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적대행동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배우자의 적대행동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결혼불안정성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만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이 지지행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부부해체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부부간의 상호작용 행동이나 부부관계의 질적측면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자원이 되는 반면 사회적 적대는 단순히 대처자원으로서의 결핍이라기보다 직접적인 대응의 형태(Abbey et al., 1985; Vinokur et al., 1996 재인용)로서 적대행동이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부부관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Conger 등(1990a, 1990b)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압박이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부부갈등의 수준이나 변화와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압박은 남편과 아내의 감정을 악화시켜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배우자 간의 지지적, 적대적 상호작용 행동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경제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에 개입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처리적 경제적 측면의 지원에만 편중하는 대책의 관점을 바꾸어 부부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는 예방적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부부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적대행동과 지지행동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부의 갈등해결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부부간의 상호지지 행동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족해체를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남성의 결혼불안정성은 배우자의 적대행동 다음으로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배우자의 지지행동 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실직과 같은 경제적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나 주변의 지지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위기상황의 가족을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도시와 소도시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조사

대상자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대표성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내용의 성격상 응답을 꺼리고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응답을 배제할수 없다. 그리고 부부 쌍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가 적어 남성과 여성 각각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므로 부부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의도에 비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부부 상호작용의 효과는 인과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 간에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줄이도록 갈등과 문제해결기술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부부 상호작용에 초점 둔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9월 12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1월 22일

####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2006). 생계형 이산가족 급증. 2006. 9. 12.
- 김연옥(2001). 실직가정의 가정해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9-33.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10), 67-79.
- 노혜련(2000). 실직자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55-183.
- 박유신(1999). 기혼남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비난행동 지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명일(2004).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대처전략과 부부관계의 변화.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유성렬·정기원(2000). 실직 가구주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2(8), 397-422.
- 이경성(2003).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21-31.
- 이경영(2000). 실직자 가정의 정서적·인지적·행동적 대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민경(2000). 실직경험 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인숙·안병철(2000). 경제위기가 가족해체 고려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2(2), 1-23.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장혜경·김영란(1998).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영민(2000).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조성희(1999).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 13호, 139-166.
- 최선희·전명희(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284-308.
- 통계청(2004). 사회지표 DB.
- 한남재(1975). 한국도시가족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4, 95-114.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 Acitelli, L. & Antonucci, T.(199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marit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old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88-698.
- Berkowitz, L.(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7-393.
- Christensen, A. & Pasch, L. A.(1993). The sequence of marital conflict: An analysis of seven phases of marital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3-14.
- Cohan, C L. & Bradbury, T. N.(1997).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interaction,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28.
- Conger, R. D. & Elder, G. H.(1990a). Linking economic hardships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1990b):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46.
- Conger, R. D., Lorenz, F. O., Elder, G. H., Simons, R. L. & Ge. X.(1993).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response to undesirable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 71-88.
- Conger, R. D., Rueter, M. A. & Elder, G. H.(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54-71.
- Cutrona, C. E.(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N. Y.: Sage.
- Dew, M. A. & Bromet, E. J.(1991). *Effects of depression on social support in a community sample of women*. In J. Eckenrode (Ed.), *The social context of coping*. N. Y.: Plenum.
- Elder, G. H. Conger, R. D. & Foster, E. M.(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5-37.
- Elkind, D.(1999). *Ties that stress: The new family imbal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1994).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 Y.: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 Levenson, R. W.(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21-233.
- Jacobson, N. S. & Margolin, G.(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 Y.: Brunner/Mazel.
- Julien, D. & Markman, H. J.(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49-568.
- Kessler, R. D., Turner, J. B. & House, J. S.(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69-85.
- Larson, J. H.(1984). The effects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Family Relations*, 42, 138-143.
- Lempers, J. D. & Clark-Lempers, D. S.(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istress: An evaluation of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mother-son dyads. *Adolescence*, 32(126), 339-356.
- Liem, R. & Liem, J. H.(199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5.
- Liker, J. K. & Elder, G. H. (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Mann, S. L. & Zautra, A. J.(1989). Spouse Criticism and support: Their association with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women with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6(4), 608-617.
- Margolin, G.(1990). *Marital conflict*. In G. H. Brody & I. E. Sigel(Eds.), *Method of family research: Biographies of research projects*. Hillsdale, NJ: LEA.
- Menaghan, E. G.(1991).Work experiences and family interaction processes: The long reach of job.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419-444.
- Mills, R. J., Grasmick, H. G. Morgan, C. S. & Wenk, D. (1992). The effects of gender, family satisfaction, and economic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Relations*, 41, 440-445.
- Pasch, L. A. & Bradbury, T. N.(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Publishing.
- Rook, K.(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46, 1097-1108.
- Ruehlman, L. S. & Wolchik, S. A.(1988). Personal goals and interpersonal support and hindrance as factors in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5, 293-301.
- Ruscher, S. M. & Gotlib, I. H.(1988). Marital interaction patterns of couples with and without a depressed partner. *Behavior Therapy*, 19, 455-470.

- Shinn, M., Lehmann, S. & Wong, N.(1984).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55-76.
- Thoits, P. 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Vinokur, A. D. & van Ryn, M.(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65(2), 350-359.
-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Walsh, S. & Jackson, P. R.(1995). partner support and gender: contexts for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8, 253-268.
- Williams, D. G.(1988). Gender,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9, 452-468.